

美 사로잡은 광주産 ‘삼성 세탁기’

컨슈머리포트 평가 1위...성능·진동·에너지 최고 등급

광주에서 만든 삼성 드럼세탁기와 건조기가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유력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가 최근 실시한 제품 성능평가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삼성 드럼세탁기가 1위를 차지했다.

삼성 드럼세탁기 2종(WF457-WF455)은 세탁성능, 에너지·물 사용, 용량, 진동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소음 부문에서도 ‘매

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두 모델 모두 100점 만점에 총점 89점을 받아 81개 평가 모델 중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광주사업장에서 만든 건조기(DV457)는 미국 최대 일간지 USA 투데이의 평가기관 리뷰드닷컴이 최근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멕시코 법안에서 제조한 양문형 냉장고(RS265TD)는 저소음 부문에서 ‘최고’ 등급, 에너지 효율성, 사용성, 온도 성능 부문에서는 ‘매

우 우수’ 등급을 각각 획득하며 평가 대상 88개 모델 가운데 1위에 선정됐다. 뛰어난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베스트 바이’ 제품으로도 뽑혔다.

중국 법안에서 생산한 전자동세탁기(WA422)는 세탁성능, 용량, 물 절약, 진동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일반세탁기 1위에 올랐다.

한편, 컨슈머리포트는 미국 최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월간지로, 제품별 가격과 성능을 비교·분석해 온라인 사이트에



평가 결과를 수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값 못하는 외국産 ‘식기 세척기’

100만원 더 비싸고도 세척력·전기·소음 국산보다 떨어져

외국산 식기세척기가 제값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보다 가격은 100만원 이상 비싸면서 성능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진다 조사가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기세척기 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가격이 가장 저렴한 동양매직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산으로는 동양매직의 DWA-3320D와 LG전자의 D1265MF 제품을, 외국산으로는 독일 밀레코리아리미티드의 G5100SC와 화인어프라이언스의 SN25E230EA 등 총 4개 제품의 세척력과 전기·물 사용량, 세척시간, 소음 등을 시험한 뒤 비교·평가했다. 제품별로 오염된 그릇·접시·컵

■ 식기세척기 성능시험 결과

판매업체	모델명	제조국	판매가격 (원)	시험항목						소음 (dB)		
				세척성능 (오염식기 수)	전기사용량 (kWh)	물 사용량 (L)	세척시간 (분)	자중	강력		자중	강력
동양매직	DWA-3320D	한국	613,350	0	0	1.30	1.45	15.3	17.1	109	105	45
LG전자	D1265MF	한국	852,690	30이하	30이하	1.02	1.83	9.4	18.7	148	172	44
밀레코리아리미티드	G5100SC	독일	1,850,030	30이하	0	1.22	1.52	16.6	16.8	138	171	38
화인어프라이언스	SN25E230EA	독일	1,980,580	30이하	0	1.24	1.35	12.4	12.6	142	146	43

(자료: 한국소비자원)

등 총 40개의 식기를 세척했으며, 자동코스(보통코스)와 강력코스로 나눠 시험했다.

그 결과, 가격이 60만원대로 4개 제품 중 가장 저렴한 동양매직이 자동코스과 강력코스 모두 오염된 식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세척했다. 세척시간도 가장 짧았다. 기능은 잠금장치·종료알림·시간

표시·분리세척·예약 등 다양하게 갖췄다. 하지만 소음은 가장 컸다.

80만원대인 LG전자 제품은 4개 제품 중 세척력이 가장 떨어졌다. 자동코스·강력코스에서 모두 오염 식기 수가 3개 이하로 나타났다. 전기

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세척했다. 세척시간도 가장 짧았다. 기능은 잠금장치·종료알림·시간

독일산 밀레코리아(180만원대)와 화인어프라이언스(190만원대) 제품은 강력코스에서는 오염 식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자동코스에서는 둘 다 오염 식기가 3개 이하 발생했다.

4개 제품 가운데 소음은 밀레코리아 제품이, 전기·물 사용량은 화인어프라이언스 제품이 가장 작았다.

기능면에서도 밀레코리아 제품은 종료알림·시간표시·분리세척 기능이 없었고, 화인어프라이언스 제품은 종료알림 기능이 없었다.

반면, 가격은 독일산인 밀레코리아리미티드와 화인어프라이언스 제품이 동양매직 제품보다 각각 201%(123만6680원), 223%(136만7230원) 등 3배 이상 비쌌다.

자세한 비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경제, 더 뚝을 바닥도 없다

부동산·내수 침체...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탓에 국제 교역량이 급감하고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과 산업 생산이 흔들리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8일 국내외 경제 예측기관에 따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대외 변수에 따라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9%에서 2분기 0.3%로 내려앉았다가 또다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2008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4.6%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2009년 1분

기와 4분기에 각각 0.1%, 0.2% 성장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일각에서 3분기가 저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대할 여건이 아니다”며 “4분기에 회복할 수는 있지만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4분기에 연말 밀어내기 수출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는다고 추세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유럽·미국 등 대외 환경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데다 국내 소비도 부진하다”며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면하더라도 장기적인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

다른 예측기관들의 전문가들도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3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4분기에 다소 개선 여지는 있지만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 위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명목 교역량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급격히 회복해 2010년 22.1%, 지난해 19.7%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1.7%로 급감했다.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도 작년 5.4%에서 올해 1~7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3.9%로 둔화했다.

세계 교역량과 생산은 한국 경기 위축으로 이어졌다. 수요 감소로 수출이 부진해지고 교역량 감소는 해운·조선·철강 업종 등에 타격을 준다. /*연합뉴스

KJB 사랑센터 40호 ‘소망장애인복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최근 목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인 ‘소망장애인복지원’에서 송기진 은행장(왼쪽 두번째)과 전남서부광역리더스클럽 고창회 회장(맨 왼쪽)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JB 사랑센터 40호’ 선정식과 후원기부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한국 연금체제 18개 국가중 16위

우리나라의 연금 체제가 세계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호주금융연구원(ACFS)가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지수 44.7점으로 조사 대상 18개 주요국 중 16위 그쳤다. 1위는 덴마크(82.9점)였

으며 중국(45.4점)이 15위, 일본(44.4점) 17위, 인도(42.4점)는 18위였다.

A부터 E등급까지 나눈 연금 시스템 등급 중 한국은 D등급으로 나체 수준이었다.

한국의 연금시스템이 나쁜 평가를 받은 데는 공적 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 사적 연금의 낮은 가입률, 저출

산·고령화 인구구조, 임의 가입방식의 퇴직연금제도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연금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최저 연금 지급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퇴직 연금의 지급보장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률 64%

국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10대 중 6대는 교통사고 시 자기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개발원이 2011회계연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

보(이하 자차담보)를 분석해보니 전체의 64.2%인 822만대가 자차담보에 가입했다.

자차담보 가입률은 2009회계연도 63.7%, 2010회계연도 63.9% 등 매

년 상승했다.

차 값이 비싼 2천cc 초과 대형차와 출고 3년 이내 차량의 자차담보 가입률이 각각 73%와 90.7%에 달했다. 서울(74.1%), 경기(73.5%), 인천

(69.5%) 등 수도권 가입률이 높았으나 부산(47.7%), 울산(47.9%), 대구(47.9%) 등은 낮았다. 여성(66.1%), 30대(65.7%), 1년 미만 가입자(65.5%)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자차담보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복 재테크 2000만원 소액 투자로 월 80만원의 수익



+ 전복양식업의 전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 전복산업의 시장은 약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의 사업으로 매년성장하는 거대 산업이며 주요 수산물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현재 세계2위의 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 완도 전복

2011년 기준 약3700여명의 어민이 연간 7,400톤을 생산 3,5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전복 일류화 상품개발을 위해 생산관리 유통 판매, 수출, 홍보지원, 관리 지원 등 총 29개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전복 치매 축양산업 이란?

새끼 전복을 부화시켜 일정기간 키운 후 양식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복양식업의 기반 산업.

+ (주)미인수산영어조합법인은?

완도군 완도를 농공단지에 위치 약 33,000㎡(약 만여평) 1200개의 수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국내 최대 전복 치매축양사업을 하고있다.

+ 투자방법

- 2000만원 소액투자(1수조)후 월80만원의 배당 발생.
- 계약기간:6개월 단기계약 (단, 계약 종료후 원금은 100%환급하며 계약 연장은 별도 협의.)
- 선착순 100수조에 한 하며 개인당 5수조에 한 함.
- 주1회 생산현장 방문 (희망자에 한함)

+ 투자조건표

구 분	1개월분	6개월분
2,000만원	월 80만원	총 480만원
4,000만원	월 160만원	총 960만원
6,000만원	월 240만원	총 1,440만원

+ 신청계좌

- 신 청 금 : 100만원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9-716801
- 예 금 주 : (주)미인수산영어조합법인

※ 미계약시 신청금은 반환 됩니다.

문의 전화 062-368-8100

(주)미인수산영어조합법인